

“잘못된 용역...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축소”

한수원, 2005년 온배수 확산 거리 29.7km→20.2km 축소
“복사열 반영해 범위 산정... 결과 오류·보상금 기준도 잘못”

영광 주민들 법적소송 검토

한국수력원자력이 잘못된 용역 결과를 내놓아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범위가 축소됐다는 지자체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영광 지역민들이 15년 전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 범위를 놓고 한수원의 용역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던 점, 해당 용역 결과 가온·배수 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영광군수협 등은 지역민을 중심으로 15년 전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소송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측 용역 결과가 잘못됐다는 게 명사됐다. 한수원과 지역민들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던 ‘광역해양조사 용역’ 보고서를 180도 뒤집은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당시 2001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4년간 영광원전 주변 지역을 조사하면서 어민 보상 범위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거리(자연해수보다 1도 상승)를 2002년 중간보고서를 내놓을 때는 29.7km로 했다가 2005년 8월 최종보고서에는 20.2km로 줄여 발표했다. 한수원측은 이같은 용역

역 보고서를 근거로 어업 피해범위를 확정,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수산과학연구소는 이번 용역요약보고서를 통해 “복사열을 적용해 확산범위를 29.7km에서 20.2km로 축소한 것은 오류”라고 적시했다. 연구소측은 ‘복사열 적용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복사열은 발전소가 건설되기 전부터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인위적 발생 요인인 온배수가 확산돼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범위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용역을 담당한 영광군 수협측도 “복사열을 적용하거나 배제하고 확산범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해봤지만 확산 범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 한수원측 용역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역민 반발도 예고되고 있다.

연구소측은 또 온배수 저감시설로 인한 잠·퇴적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관련된 보상 여부가 없었다는 점을 문체점으로 지적했다. 향후 저감시설로 인한 잠·퇴적 피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 여부를 놓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제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영광군 수협 등은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가 다음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법률 자문을 받아 향후 계획을 어업인단체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배 예절 배우기 민족의 명절 설을 나흘 앞둔 21일 광주시 서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열린 ‘다함께 설날 복나눔’ 차에서 이주여성 가족들이 세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정부, 호르무즈 독자파병 ...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미국·이란에 통보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관련기사 2면〉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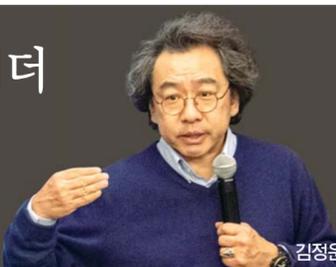
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일본은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

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김정은



최진석 전유성 박정자 강원국

고수들의 명 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 8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8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환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1월 31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63

光州日報社

설대목은 옛말 - 우울한 전통시장 ▶6면
천덕염 건축기행 - 황금빛 미안마 ▶18면
김학범호 호주전 필승 키워드는?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